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미셸 앨런이란 여성은 8살 난 딸 브리애너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센추리시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캐럴 앤더슨(42)이란 여성은 동성에 연인인 패티 데일리(40·식당경영주)와 함께 살고 있다.

변호사인 그랜트 반스(41)라는 남자는 8개의 방을 가진 그의 저택을 작가·피아니스트·박사과정제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나누어쓰면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

앞에 든 세가지의 가족형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최근 보도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족형태중 일부로 그 비율이 예전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학에서 언어병리학을 전공한 앨런은 가끔 외국에 출장다닐 정도의 지명도를 가진 패션모델이었으나 하나뿐인 딸 브리애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 3년전 부동산중개인으로 직업을 바꾸었다. 브리애너가 3살 때 남편과 헤어진 앨런은 고정된 수입이 있고 또 10일중 4일은 딸의 아버지가 돌보아 주기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다.

앨런은 저녁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는 반드시 딸과 함께 지내는 '모녀의 시간'을 갖는다. 약속 때문에 집을 비워야

할 때도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여성변호사로, 식당을 경영하는 패티 데일리와 동거하고 있는 캐럴 앤더슨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법률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보험으로 2명의 자녀(이혼전 낳은 2명의

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만이 가정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그랜트 반스 변호사는 어떤가. 반스의 경우는 하나의 가구는 될지 모르지만 가족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가 단지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만도 아니다.



90. 4. 6

미국, 4가구중 1가구가 편모솔하

2백60여만쌍 결혼 않고 동거 생활

“자녀들 가정만이 가정 아니다” 주장

10대 자녀가 있다)는 질병치료에 문제가 없으나 애인은 해당되지 않는 데 대해 불평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 하나에서 끝나지 않는다. 결혼한 사이라면 자동차가 2대 이상일 때 2번째 차부터는 보험료가 할인되나 이들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도 누릴 수 없다. 이들 동거인들은 사회가 도덕률과 과거의 가족형태만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는다. 두 남녀가 만

반스는 지난 87년 방 8개가 딸린 집을 산 뒤 이 집에서 함께 기거할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6살에서 41살까지 대학원생, 피아니스트, 작가 등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인 반스를 제외하고는 보통 9개월~1년간 살다가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세입자 모두 이같은 전환기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긴다는 것이다.

미 국세조사국은 4월1일을 기해 실시하고 있는 전국 1억60만가구를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를 통해 이같은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인구조사 설문지엔 ‘가까운 개인적인 관계(Close, Personal Relationships)’란 항목이 새로 생겼다. 여기에 포함되는 가족형태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중인 경우, 독신으로 지내는 하숙생이나 룸메이트, 동성의 파트너와 함께 사는 경우 등이 꼽힌다.

80년대에 등장한 대표적 가족형태의 하나는 미셸과 브리애너가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은 18살 이하의 자녀가 있는 편모가정.

통계에 따르면 이같은 가정이 60년 9.1%였던 것이 70년엔 11.9%, 80년 19.7%, 88년 25%로 늘어나 이제는 4가구당 1가구가 편모가정이라는 것이다. 이는 증가 추세에 있는 이혼율(현재 50% 선에서 주춤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88년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2백60만, 동성끼리 살고 있는 가구는 1백60만으로 이들 가구주의 연령은 25~34살이 가장 많다. 10년전의 숫자인 1백50만과 1백20만에 비하면 이 숫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 미국의 가족형태가 변화의 와중에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워싱턴=연합>